

스님·신부·목사 머리맞대고 ‘잡설’ 풀어

잡설
 도법·김민용·김인국 공저
 가교 펴냄
 1만3천원

스님·목사·신부, 한적한 산사와 예배당·수도원에 있어야 제각각인 사람들이 모여 때 아닌 잡설을 펼친다. 잡설이라고 해서 그냥 잡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라는 흔한 단어로는 다 표현하지 못할 세상사, 즉 우리 시대를 꿰뚫어보는 총철산인이라고 해야 옳은 말이다. 글로 따지면 일필휘지에 천의무봉이다. 잡설은 잡설이 되, 그야말로 경구가 아닐 수 없다. 오랫동안 생명평화운동을 펼쳤을 뿐 아니라 불교 갱신에 앞장서온 '도법 스님'과 거대 자본은 물론 부당한 권력과의 싸움을 해온 '김인국 신부', 목회자이자 언론학자로 줄기차게 시대 정신을 외쳐온 '김민용 목사'의 대답은 그렇게 잡설이 아닌 거친 세상을 향한 사자후다. 자살로 시작된 잡설은 이내 '죽음 불감증'에 빠진 한국 사회의 근원적 문제로 진입한다. 어린 학생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죽음 대열에 내몰리고 있지만 세상을 바꾸겠다고 큰 소리쳤던 사람들은 '나 몰라라' 한다. 생명에 대한 외경을 잃어버린 시대는 징후는 암울하기만 하다. 결국 국민들이 나서야 한다. 정부도, 여도 야도, 진보도 보수도, 자본가도 노동자도 해결하지 못하는 자살 행렬에



사진 왼쪽부터 김민용 목사, 도법 스님, 김인국 신부가 담소를 나누고 있다.

자살과 자본 함수 놓고 대담

질타 듣는 종교를 향한 고언도

교육·거대자본·선거 등 주제 다양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건 국민뿐이다. 우리의 아들·딸이 죽어가고 있음을 인식하지는 않는다. “나 같이 무식한 사람이 알기로는 지금까지 죽어라 싸웠는데 죽음의 행렬은 계속되고 있고, 사회적으로 잊혀져가고, 투쟁력은 훨씬 약화되는 상황인데 다시 강력히 투쟁해서 해답을 찾자? 이게 대체 뭘 대책이 되겠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뭘가 문제가 있는 거 같아 갑갑한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뭘가 새로운 관점과 모색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도법 스님). 한편 세상을 움직이는 거대한 힘 '자본'에 대한 스님·신부·목사의 잡설은 실로 거침

없다. 거둬 자본의 치부가 드러나고 있지만 후안무치한 자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수많은 폭로가 이어지고 있지만 해답을 찾지 못한다. 해답을 제시해야 할 책임이 있는 지식은 그저 침묵으로 일관한다. 더 큰 문제는, 문제를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의무교육, 즉 학교마저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경쟁만능의 시장에 내몰린 학교는 이제 지배 이데올로기를 모조리하기 위한 기구에 지나지 않는다. 그 단적인 예가 MB 정권이다. 자본과 영합한 권력, 특히 MB 정권은 자본을 파트너로 삼아, 아니 당당하게 보호자가 되어 생명의 강을 죽음의 강으로 만들었다. 기독교와 가톨릭 교회의 처사도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런 문제를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게 의무교육이어야 하는데 학교가 그 역할을 안 하지도. 사실 학교는 지배 이데올로기를 모조리하기 위해 생겨났어요. 민주주의가 확립되지 못한 사회의 학교일수록

폭력 시스템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도록 가르치지 않지요. 일제 강점기의 '국민학교'를 생각해보면 금방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 일을 교육, 언론이 안 하면 종교라도 해야지요.”(김인국 신부).

스님·신부·목사는 스스로가 자리를 펴고 있는 '종교' 영역에 대해서 더 엄격한 잡설을 뽐냈다. 종교에 대해 이야기하기에 앞서 세 사람은 한국의 종교 현실을 영화 '친절한 금치씨'에서 이미 결론을 내렸다고 중지를 모은다. “너나 잘 하세요.” 기독교이건, 가톨릭이건, 불교이건, 이제 “누가 누구를 대속하고 구원한다는 말이나”는 것이다. 종교가 세상을 근심하던 시대를 지나 이제 세상이 종교를 격정하고 근심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특히 종교와 관련한 대화에는 종교학자 오강남 박사와 정파교회 김기석 목사가 동참해 교회와 역사 현실에 대한 이야기의 범주를 확장시킨다. 김기석 목사는 종교가 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상상력의 회복을 강조한다.

스님·신부·목사의 잡설은, 잡설이 되 세상을 변화시키는 잡설이다. 종교의 울타리를 뛰어넘어 정치와 경제, 사회 등 우리 사회를 일신하는 고갱이에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색장연한 고담종론만을 되뇌, 뒷집 지고 세상만 질타하는 종교인들이 아니라 세상의 변화와 폭력 앞에 온몸으로 맞서고 있는 사람들 이야기에 그들의 잡설은 실상 우리 사회를 후려치는 죽비소리에 다름 아니다. 일상이 본연의 모습을 드러내고, 오늘을 영원에 비취 볼 수 있는 스님·신부·목사의 잡설에 우리 모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다. 김주익 기자

17세기 조각승 유파와 그들의 작품 설명

조선후기 불교조각사

송은석 지음 | 사회평론 펴냄 | 3만2천원



이 책은 17세기 전반에 활동했던 다섯 개의 조각승 유파와 그들의 작품에 대한 이야기이다. 저자는 한국 불교조각사 최초로 조각승을 유파별로 정리하고 작품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수조각승 헌진과 청원, 응원과 인균, 수연, 법령, 무염이 이끌었던 다섯 유파는 자신들만의 독특한 양식을 발전시켜 불상들을 대량으로 조각해냈다. 개별 조각자를 넘어 집단 창작 체계를 구축한 조각승 유파에 대한 이야기는 조선후기 불교조각사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다.

조선시대 중반, 임진왜란이라는 재앙이 전 국토를 휩쓸고 지나갔다. 전쟁이 끝나고 17세기에 들어서면서 전국적 재건이 시작되는데 이때 사찰도 함께 재건된다.

이때 대량의 불상을 조성한 사람들은 조각가도 기능공도 아닌 승려였다. 전문적으로 조각만을 하는 장인이 아니었던 것이다. 기록에는 이들을 화원(畵員) 혹은 화사(畵師)로 칭하고 있으나 실제 이들의 직업은 승려였다. 현대 학계에서는 이들을 조각승(彫刻僧)이라 부르고 있다. 대량의 불상이 동시에 필요했던 시대 상황은 당시의 조각승들로 하여금 공동 작업이라는 작업 방식을 채택하게 한다. 조각승들이 집단을 이루어 돌아다니며 공동으로 불상조성 작업을 한 것이다. 이 집단은 수화사(首畵師)로 불리는 우두머리 조각승 아래 차화사(次畵師), 그리고 일반 조각승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수화사는 작업을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감독으로, 가장 중요한 밑그림 그리기와 마무리 작업을 맡았다. 수화사가 밑그림을 그리고 나면 차화사 및 나머지 조각승들이 수화사의 감독하에 전체 통나무를 깎아 몸체를 만들었다. 그 후 얼굴, 다리, 옷주름 등 부분조각을 마지막에 수화사가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한 후 작업을 완성하였다.

마치 마스터는 작품을 수수받고, 작품의 일개를 구성하고 밑그림을 그리면 제자들이 물감을 꺼 채색 작업을 도왔던 서양의 작업공방처럼, 17세기의 조각승들은 집단 작업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였다.

수조각승 아래 공동으로 작업을 진행하면서, 조각승들은 자연스럽게 수조각승의 작품을 이어받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조각승 집단의 유파가 성립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한국미술사에서 그 구체적인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첫 작가 그룹이 형성된 것이다. 1610년대에 헌진·청원을 수조각승으로 한 유파의 성립을 시작으로, 응원·인균파, 수연파, 법령파, 무염파, 이렇게 다섯 유파가 17세기 전반에 확립되었다. 가장 규모가 큰 집단의 경우 30여 명에 이를 정도로 컸던 작가 그룹-유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들이 경제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수량의 불상들이 지속적으로 조성되어야 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들의 활발한 활동은 당시에 충분한 사회적·경제적 여건이 주어졌었음을 짐작해볼 수 있는 계기이기도 하다.

저자가 조선시대 불상에 대해 연구한 것은 2001년부터이다. 십여 년의 연구 기간 동안 전국의 사찰을 찾

임란후 대량 불상 조성 필요

조각승들 공동 불상 조성 작업

조선후기 불교조각사 새 접근

아다니며 직접 불상을 확인하였다. 저자가 조사한 17세기 불상은 수백여 점에 이르는데, 그중에서 조각승 유파의 계보를 완벽히 밝혀 책에 실은 것은 총 142점이다. 이 결과물을 얻기까지, 송은석의 집은 개별 불상 양식을 정리하고 그 안의 복잡발원문을 모두 옮기고 해석하는 작업을 거쳤다.

특히 복잡발원문은 송광사 성보박물관장 고경선님과 함께 오랜 시간 식문한 끝에 조각승 유파의 계보를 담은 데이터베이스로 정리할 수 있었다. 또한 직접 촬영한 방대한 양의 불상 사진 역시 기존 연구와 차이점이다. 정면과 측면을 고루 촬영한 192점의 도판을 보여주고 일일이 해설함으로써 유파 간의 특징을 증명하고 있다. 이렇게 수립한 유파별 양식을 기준으로 발원문이 조사되지 않은 불상들까지도 조각승을 추정하였고, 그 결과 17세기 조각승 유파와 그들이 조성한 불상에 대한 체계를 완성하게 되었다.

김주익 기자

행복 꿈꾸는 이들을 위한 멘토링

말로 생각하지 말고 머리로 걷지 마라

글 덕일 스님 | 사진 윤창호 | 책은 숲 펴냄 | 1만3천원



BTN 불교 TV에서 방영한 '금강경 생활법문'을 통해 대중들에게 '생활의 고통을 풀어 주는 스님'으로 알려진 덕일 스님. 최근에는 전국 주요도시에 선원을 열어 매일 수많은 사람들에게 법문을 전하고 있다. 불자들에게는 인생 멘토로서 이미 알려진 스님이다. '말로 생각하지 말고 머리로 걷지 마라'는 책 제목부터가 신선하다. '시대를 초월한 덕일 스님의 성공과 행복을 위한 멘토링'이라는 부제도 눈에 띈다. 성공, 행복, 멘토링…… 지금 시대의 키워드들로 채워진 책 표지에서 이 책이 일상생활에서의 고뇌와 번민을 풀어 주는 책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 책을 쓴 덕일 스님은 도시의 숲 속에서 지지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도시에서 법문을 한다. 스님의 법문을 펼치는 사홍선원은 경치 좋은 국립공원의 산사가 아니라 어찌보면 허름해 보일 수 있는 도시 상가에 자리 잡고 있다. 특히 BTN 불교 TV의 생활법문을 통해 '생활의 고통을 풀어 주는 스님'으로 크게 알려진 뒤로 전국 주요도시(서울, 부산, 대전, 대구, 울산, 부산)에 선원을 열어 도시의 숲속에서 대중들과 만나고 있다.

이 책은 알 듯 말 듯한 용어로 가득 찬 철학서나 일반적 종교서가 아니다. 곁에 두고 누구나 쉽게 틈틈이 읽으면서 마음이 힘들 때마다 경전처럼 읽을 수 있는 책이다. 이 책은 "자식으로 인한 고통, 경제적 어려움, 학교 폭력, 부부 문제, 고부 갈등 등 치명적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으로 임해서 그들의 지극한 통증을 해소"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할 스님의 98개 생활법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주익 기자

참 곱게 늙은 인생 멘토, 옛 그림

그림공부 인생공부

조영욱 지음 | 아트북스 펴냄 | 1만6천원



'옛 그림은 사마천의 <사기>다'라는 생각으로, 한중일 삼국의 옛 그림에서 찾아낸 삶의 지혜를 들려준다. <사기>가 인생을 공부하는 데 훌륭한 지침서가 되듯이, 사람살이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옛 그림 또한 인생의 등불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다. 옛 그림은 속 깊은 멘토다. 산수화, 초상화, 풍속화, 민화, 불화, 우키요에 등 멘토의 종류도 다양하다. 현대인의 고민과 맞닿아 있는, 지은이의 옛 그림 읽기는 내면을 직시하며 삶을 확장시키는 인문학적 그림 읽기다. 저자의 옛 그림 사용방식은 특이하다. 옛 그림을 이야기하되, 그 시대와 화가와 작품

에 얽힌 이야기만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모란꽃을 보여주면서 모란꽃에 대한 설명은 거의 하지 않은 채, 모란꽃을 사랑했던 어머니가 치매에 걸린 이야기를 하는 식이다."

감상 주제인 자기 삶을 통해서 옛 그림과 만난다. 그것도 사계절을 나면서 일상에서 부딪치며 겪은 소소한 이야기가 중심이다. 독자는 옛 그림과 일상의 아름다운 동행에서, 옛 그림이 고리타분한 유물이기보다 지금 우리가 사는 데 필요한 에너지원일 수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독자도 저자처럼 얼마든지 옛 그림으로 자신을 이야기하고 수다를 떨 수 있음을 일깨우려 노력했다. 오랫동안 옛 그림의 권위에 주눅이 들었던 독자의 마음을 풀어주고, 그림과 친밀감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고자 한 것이다. 옛 그림도, 결국 우리와 비슷한 삶을 산 옛 사람들이 자기네 삶에서 길어낸 '지혜의 경전(經典)'이었는데 생각이 미친 것이다. 즉 사람과 사람살이의 발견으로, 옛 그림을 인생이라는 넓은 범주에서 다시 보기 시작한 셈이다. 김주익 기자

改名公告

무무암(강원도 횡성) 회주 覺雲은

2012년 11월 21일부로

법명 覺雲을 無山으로 改名함을

제방에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1일

사단법인 전국사설사암단체총연합회 회장

무무암 회주 無山 합장

성명을 통변 위주로 공부한다!!

국내 유일하게 성명만을 강의하는 좋은이름연구원 에서

15기생 모집을 위한 무료 공개 강의

11월 27일 (화) 오후 3시

구궁성명학 · 이름에 관한 모든 것

■이런분은 꼭 들으세요

- 여기저기 다니다가 지친 분 : 성명학 5개월 후 부터는 수업이 생기는 방법이 있다.
- 역할관 개입을 앞두고 계신 분 : 사주보다 쉽고 확실한 통변술이 여기 있다.
- 돈을 벌면서 역할공부를 하실 분
- 완벽한 노후 준비를 원하시는 분
- 역할을 5~10년을 해도 통변이 안되는 분

※ 수료와 동시에 성명학 감정사 자격증을 수여하고 개업을 적극 도와드립니다. 한국 최초의 구궁성명학으로써 사주보다 정확한 통변으로 고객층을 두텁게 확보 할 수 있습니다.

시중에 흔한 원형이정이나 수리 성명학이 아닌, 사주의 용신을 보완하고 공망과 태과한 오행을 피하며 남감을 붙여 운의 흐름을 상세히 알 수 있는 성명학을 강의합니다.

(3,6호선 연신내역 7번출구 도보 1분거리)

02)383-8860 / 010-7701-2248

NAVER 서울에서 유명한 작명소 goodname114.com

범음범패 학인 모집

- ◆ 실용의식 : ① 천수경 ② 상단, 각단예불 ③ 천도, 49재 모돈의식
- ◆ 작법무 : ① 천수바라 ② 화의재바라 ③ 오공양작법 등
- ◆ 교육과정 : 6개월
- ◆ 모집인원 : 수시모집
- ◆ 교육대상 : 제한없음
- ◆ 개강일시 : 2012년 12월 3일 개강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 오후 4시까지)
-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사진 3매
- ◆ 교육장소 : 경남 고성군 대가면 양화리 578 대무량사 추무원 (불교회관)
- ◆ 문의처 : 010-5065-5690, 010-4746-6581, 011-887-4591

(사) 한국미륵불교 부설

불교대학 범패원

수정기공 특강 안내

신지식인 대한민국 정부인정 660

2012년 신지식인 최우수상 수상

교 재 : 75,000원 특가 68,000원

정기강의작 : 매일 첫째 일요일 오후 1시 30분~6시

장 소 : 수원시 성균관대학역 주변

모집인원 : 매회 8명 이내

연 락 처 : 010-3463-7806

홈페이지 : soojung99.pe.kr

수정기공 창시자 김문기 원장 직강

온라인번호 : 농협 207176-51-204175